

“삶은 번뇌 속 해탈한 돌부처와 같은 것”

여든여섯 김준호 화백 23번째 전시

20일부터 관선재 ‘돌부처 드로잉전’ ‘미륵세상’ 꿈꾸며 운주사에서 위로 서양화풍 내려두고 ‘흑백작업’ 변모



김준호 화백.

천불천탑과 와불로 유명한 화순 운주사는 1980년 광주항쟁 이후 ‘미륵세상’을 소망하는 많은 사람의 수양처로 주목받았다. 세상살이가 팍팍할 때, 외로움이 엄습할 때 이곳에서 위로를 얻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든여섯의 나이에도 붓을 쥔 원로화백 김준호 작가 역시 이곳에서 위로를 받았다. 그를 위로한 것은 운주사의 천불천탑이나 와불이 아니라, 빼만 앙상하게 남았거나 깨어지고 못생긴 돌부처였다. 그것들을 한 십 경 바라보고 있으며 입가에 작은 웃음이 번지고 어느새 세상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해탈을 경험했다.

평생을 한국적 정한에 전착해온 김준호 화백은 세상살이가 힘들 때마다 이곳을 찾아 무언의 대화를 나눴고 그때마다 친구가 되어주었던 돌부처들을 하나 하나 화폭에 담았다. 그렇게 오롯이 담목으로 그려낸 돌부처와 석탑을 모아 23번째 개인전을 연다. 전시 ‘김준호 돌부처 드로잉전’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동구 예술거리리에 있는 관선재 갤러리에서 이어진다. 차분한 시선으로 관조한 돌부처 30여점과 소나무 20여점을 감상할 수 있다.

김준호 화백은 반세기 넘게 작가의 삶을 살면서 수려한 색채로 서양화풍의 남도 풍광을 묘사해왔다. 동백꽃, 여인, 봄 풍경 등 자연의 색채를 캔버스에 옮겼다. 그런데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그동안 그려온 세계와 사뭇 다르다. 흑백의 담묵은 쓸쓸함을 물씬 풍기게 하고 돌부처 외형에는 오랜 세월의 질감을 남겨 깨지고 쪼개진 흔적까지 남아 있다. 어찌면 이는 고된 생애를 지나온 해탈의 경지, 비로소 터득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

운주사를 찾아온 간절한 사연이 깃들고 지난한 세월을 견뎌온 돌부처의 외형은 그의 삶과 닮았다. 김 화백은 지난 1986년 대장암에 걸려 투병을 이겨냈다. 무등산, 한라산 등 무작정 산을 찾아다니며 ‘고통’도 받아들이는 해탈의 경계 오르기 위해 끊임없이



김준호 작 ‘운주사 분신불’.

수행의 길을 걸었다. 1990년대부터는 화순 운주사를 다녔다. 운주사 입구의 동남지 거지탑과 송장탑, 호떡탑과 향아리탑, 할아버지나 할머니 부처, 아기부처, 시종부처 등 돌부처 80기와 석탑 21기를 접하며 돌부처에 담긴 자비세상을 붓으로 한땀 한땀 그려냈다.

콩테, 먹, 돼지털붓 등을 사용해 완성한 특유의 질감도 감상의 묘미다. 김 화백은 “드로잉이 쉬운 것 같아도 종이와 연필의 공합을 맞춰야 온전한 모습을 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에는 먹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며 “화선지에 먹을 사용하면 먹이 너무 번져 수채화 종이를 사용했고 붓은 양모가 아닌 유화에 사용되는 돼지털 붓을 사용해 특유의 느낌을 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콩테며 연필이며 동양적 색감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며 “투박하면서도 은은한 돌탑을 표현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천착한 것인 먹 그림이다. 연필 드로잉이나 콩테만으로 도무지 느낌이 살지 않았던 것이 먹을 사용하니 온화한 동양적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마치 서양화를 그리는 것처럼 여러 번 덧칠하면서도 먹물이 너무 번지지 않게 명암표현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평생 붓을 들어온 생애다. 절대 도전이랄게 없을 것만 같은 미술인생에 여전히 영역을 확장하고 변화를 거듭한다. “붓을 들 수 있을 때까지 미술인으로서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수궁가·심청가 주요 대목 한 무대에

시립창극단 ‘판소리 감상회’ 28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광주시립창극단의 기획공연 판소리 감상회가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판소리 감상회는 2022년부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판소리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선보인 기획공연으로 소리꾼의 소리와 고수의 북장단을 통해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다. 올해 판소리 감상회는 창극단 창작부 단원들의 소리로 판소리 다섯 바탕 눈대목을 감상할 수 있다.

공연은 김정미(창작부 상임단원) 소리꾼의 단가 고왕금래와 수궁가로 시작된다. 단가 고왕금래는 사람의 부귀영화와 죽고 사는 것 등에서 느끼는 지혜를 내용으로 인생의 철학을 다룬 내용이다.

두 번째 무대는 허승희(창작부 상임단원) 소리꾼의 심청가 중 꼭씨 부인 유언 대목을 감상할 수 있다. 꼭씨 부인이 산후 별증이 생겨 죽음에 이르게 되자 아이의 이름을 ‘청(淸)’이라고 지어달라고 유언을 남긴다.

마지막, 세 번째 무대는 한혜숙(창작부 상임차석) 소리꾼의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이다. 황후가 된 심청이가 아버지를 찾기 위해 황성 맹인잔치를 열게 되고, 이에 참석한 심봉사를 만나는 내용이다.

2024년 판소리 감상회는 지난 3월부터 공연이 시작돼 오는 11월 27일 무대까지 총 5회 진행된다.

판소리 감상회는 전체 관람가이자 전석 1만원으로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1588-7890)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ACC재단, 거제·과천에 ‘몰입미감’ 전시 유통

전시기간 10만명 이상 관람 근대미술 재해석 인기몰이

아시아 근대미술 작품을 디지털 콘텐츠로 만날 수 있는 ACC 창·제작 전시 ‘몰입미감’이 거제와 과천 등에 유통돼 순회 전시를 갖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8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 경남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ACC 전시 ‘몰입미감: 디지털로 본 미술 속 자연과 휴머니즘’ 순회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8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과천문화재단에서 두 번째 순회 전시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ACC 전시 기간 동안 10만 명이

상이 관람한 ‘몰입미감’은 한국과 아시아의 근대미술 작품을 디지털 콘텐츠로 담은 몰입형 실감전시다. 작품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해석을 기반으로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를 직관적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어린이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관람객 눈높이에 맞춰 회화 원작과 미디어아트가 공존하는 융복합 작품을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다.

이번 순회 전에서는 기존 ‘몰입미감’ 콘텐츠 중 상호작용 기술을 적용한 참여형 체험 위주의 콘텐츠를 선보인다. ‘체험, 손끝에 새기다’ 주제 부문에서 선보였던 김중현 작가의 ‘정물(꽃)’과 ‘춘양’, 채용신

작가의 ‘고종황제 어진’을 만날 수 있다. 또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회화 작가인 허탈 재화백의 ‘매화’ 영상 작품도 설치된다.

ACC재단은 이번 전시를 통해 축적적 상호작용으로 한국의 근대 회화작품들과 특별한 교감을 하는 심미적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선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이번 전시는 한국 근대화 거장들의 작품을 실감형 콘텐츠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협력 전시 공모사업을 통해 국내외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우수할 ACC 창제작 콘텐츠를 전국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도록 유통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여성의 미학 ‘규방문화’ 엿볼까?

정송규 개인전, 조각보 회화 31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조각보 예술을 엿볼 수 있는 정송규 개인전 ‘회억-있고 이어지는 오늘’이 오는 31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이어진다. 정송규 작가가 10여 년간 천착한 ‘규방문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세계에 대해 재조명해본다.



정송규 작.

무등현대미술관 제공

을 회억함으로써 여성과 어머니의 삶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고자 한다.

무등현대미술관은 동구 증심사길에 있다. 전시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도선인 기자

국립광주박물관 공룡특별전 ‘썸머 이벤트’

내달 1일까지 ‘2024 다이노 월드’

국립광주과학관은 올여름 성황리에 운영 중인 공룡특별전 ‘2024 다이노 월드’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어린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무료로 증정하는 ‘2024 다이노 월드 굿바이 썸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특별전에 입장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로 공룡풍선을 나눠주

고, 31일부터 9월 1일까지는 플라스틱 병뚜껑을 재활용한 기념품을 만들어 보는 시연 체험과 함께 공룡키링을 무료로 증정한다.

오는 9월 1일까지 이어지는 공룡특별전 ‘2024 다이노 월드’는 지구 46억 년의 드라마를 시작으로 공룡시대 온 듯한 생동감 있는 움직이는 공룡과 함께 다양한 진품 화석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고생물학자가 되어 체험해 보는 공룡화석 발굴, 3D펜으로 만드는 나만의 공룡, AR 공룡발자국 등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통해 지질시대와 자연사에 대해 배워볼 수 있다.

도선인 기자

